

주간 해외 에너지 정책 동향

Issue 18 / 2007.7.04

□ 베네수엘라, 유전 국유화 추진

-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제시한 오리노코 유전 지분양도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.
 - 현재 동 사업을 하고 있는 6개 정유회사 중 Conoco Phillips와 ExxonMobil이 제시안을 거부하였으며, 최종적으로 Chevron과 BP, Total, Statoil만이 PDVSA와 공동으로 유전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함.
 - 두 회사는 보상조건의 불공정성과 지분 축소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였음.
 - 이번 조치로 과거 39%였던 PDVSA 소유 지분은 현재 약 78%에 이름.
- Conoco Phillips와 ExxonMobil의 제안 거부로 인해 현재 미국은 두 회사의 원유 수입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브라질 등은 PDVSA와 공동으로 사업개발 참여를 원함.
 - Conoco Phillips가 베네수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유는 회사 전체 물량의 4%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국제원유시장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.
 - 그러나 장기적으로, PDVSA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경우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 능력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음.

(Prensa Latina, 2007.6.26), (EFE, 2007.6.29)

NEWS

- 베네수엘라, 유전 국유화 추진
- 원자력, 지구온난화 해결책으로 미흡
- 멕시코 Cantarell 유전 생산량 감소
- 유럽 천연가스수요의 12% 대체리에 의존
- 사우디, 가스부문 개발 계획
- EDF, 카타르와 LNG 수송 계약 체결
- 프랑스 GRTgaz, 가스관망 개발계획에 37~57억 유로 투자 예정
- 스위스, '08년부터 탄소세 도입
- 앙골라, 자국 내 천연가스 탐사 승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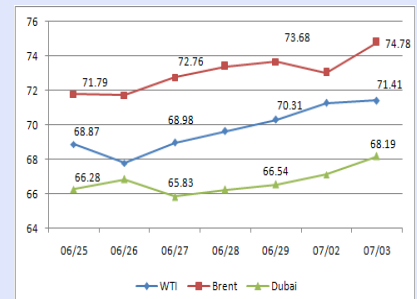
ANALYSIS

- 카타르 LNG수출 전략
- 일본, 전력시장 소매자유화 논의
- 캄보디아 해상유전 개발

REPORT

- '07 Global Energy Survey

Oil Prices (Spot)



자료 : 한국석유공사



ASIA & AMERICA

□ 원자력, 지구온난화 해결책으로 미흡

- 영국의 옥스퍼드리서치그룹(ORG)에 따르면, 원자력발전으로 세계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확산에 따라 국제안보가 위협받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함.
- ORG는 현재 세계 전력수요의 16%를 담당하는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기여하려면 '75년까지 세계 전력수요의 3분의 1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함.
- 이는 향후 70년간 매 월 원자력발전소 4곳이 신축되어야 함.
- 전력의 78%를 원자력에서 얻는 프랑스조차 이러한 건설속도에 근접하지 못했고, 원자력에 개발에 따른 핵무기 확산 가능성은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함.
- 세계적인 원자력 붐은 저품위 우라늄 개발로 이어져 채굴 및 정제 과정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야기할 수 있으며, IAEA의 민간 원자력에 대한 통제 및 감시능력도 한계에 이를 것임.
- ORG는 동 보고서에서 원자력이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원자력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힘.
-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자력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, 반대론자들은 수 천년동안 남아있을 방사성폐기물의 유독성을 주목하고 있음.

(Reuters, 2007.6.29)

□ 멕시코 Cantarell 유전 생산량 감소

- 멕시코 Cantarell 유전의 5월 원유 생산량은 전월대비 2만 b/d 감소한 158만 b/d를 기록함.
- Cantarell 유전은 멕시코 GDP의 30%를 담당하며, 자국 내 원유 총생산



량의 60%를 차지하는 대형유전이지만 지난해부터 원유생산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올해 5월 동 유전의 총생산량 점유율은 51% 수준임.

- 이러한 원유생산 감소로 멕시코 석유공사(Pemex)는 '06년 일일 목표 생산량 352만 배럴을 달성하지 못하여 정부로부터 \$2억9,500만 상당의 패널티를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짐.
- 재정 수입의 40%를 Pemex에 의존해 온 멕시코 정부는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, 6년간 세금을 단계적으로 30%까지 늘리고 기업체에 대한 면세 혜택을 감소해가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.

(Reuters, 2007.6.26) (La Jornada, 2007.6.29)

EUROPE, MIDDLE EAST & AFRICA

□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12% 알제리에 의존

- 알제리 에너지광물부는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의 12%를 알제리가 공급하고 있다고 밝힘.
- 알제리와 유럽은 공동프로젝트를 통하여 에너지안보와 지중해유럽시장 구축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분야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.
- 알제리는 소나트라를 통하여 유럽 가스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.
- 현재 이탈리아, 스페인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운영 중이며, 이 두 나라는 다른 3개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임.
- ① 알제리-이탈리아 파이프라인, '12년 운영예정 ② 알제리-스페인 파이프라인, '09년 운영예정 ③ 나이지리아-알제리를 통해 나이지리아산 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, '15년 운영예정

(Moheet, 2007.6.25)

□ 사우디, 가스부문 개발 계획



- 사우디는 최대유전지대인 가와르 유전에서 100km 떨어진 카란 가스전의 가동을 '11년 말에 개시할 예정임.
- 카란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283억 m³이며, 향후 일일 2,800만 m³의 가스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.
- 사우디는 가스개발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1.36조 m³ 추가매장량을 확보함으로써 6.8조 m³의 가스매장량을 보유하게 됨.
- 아람코가 수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사우디의 가스매장량을 20% 증대시킬 것으로 보임.
- 사우디는 발전과 담수화, 석유정제시설 확대 등으로 가스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.

(Ameinfo, 2007.6.23)

□ EDF, 카타르와 LNG수송 계약 체결

- EDF와 카타르 RasGas는 연간 약 45억m³(LNG 340만톤)의 LNG 수송 계약에 합의하였음.
- 동 계약은 EDF의 자회사인 EDF Trading을 통해 이루어졌으며, 계약기간은 4년 6개월임.
- LNG는 RasGas의 액화공장에서 벨기에 Zeebrugge 터미널로 운송될 예정임.
- RasGas는 동 계약으로 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북서 유럽시장에 진출하게 됨.
- EDF는 50%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Edison을 통해 RasGas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, 이번 계약으로 LNG부문의 입지를 강화하게 되었음.

(LesEchos, 2007.6.28)

□ 프랑스 GRTgaz, 가스관망 개발계획에 37~57억 유로 투자 예정

- GRTgaz는 지난해 '07년~'16년 동안 가스관망 개발에 최소한 32억 유로



의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37억~57억 유로로 상향 조정함.

- 이는 수직통합기업에서 수송망사업을 분리되어야 한다는 EU 집행위원회 주장에 대치되나, GRTgaz는 수직통합기업 체제에서 모범적으로 수송망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함.
- 동 계획은 프랑스의 배관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천연가스 수송 능력을 확대하고, 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.
- 동 계획은 원활한 가스 거래와 공급물량 확보, 시장 자유화 활성을 위한 GRTgaz의 전망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제시함.
- 프랑스 다섯 개 지역에 LNG 인수기지 확대 및 신축하고 북부는 벨기에, 남부는 스페인과 연결하는 망 확대
- '07년~'16년 동안 프랑스의 천연가스의 수요증가율은 연평균 1.8%로 예상되며,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은 세 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
(Reuters, 2007.6.25)

□ 스위스, '08년부터 탄소세 도입

- 스위스 연방정부는 교토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'08년 1월 1일부터 수입 화석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.
- 탄소세는 난방용 석유 1ℓ당 \$0.25(0.3 스위스 프랑), 가스 1m³당 \$0.2(0.25 스위스 프랑)가 부과될 예정임.
- 스위스는 '06년 교토협약에서 정한 감축 목표인 6%를 달성하지 못하고 4.5% 감축에 그쳤으며, 이에 스위스 연방정부와 의회가 탄소세 도입에 합의하였음.
- 교토협약에 따르면, 스위스는 '12년까지 탄소 배출량 8% 감축 의무가 있음.
- 이산화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경우, 탄소세는 '09년, '10년에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임.

(XI, 2007.6.29)



□ 앙골라, 자국 내 천연가스 탐사 승인

- 앙골라 의회는 정부가 'Angola LNG'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가스 탐사와 개발,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음.
 - 이에 따라 앙골라 정부는 가스탐사 기업에 제공될 감세 및 세금 면제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.
- Angola LNG 프로젝트는 '02년에 개시된 프로젝트로 이미 발견된 유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상업화하는 대규모 사업임.
 - 동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될 LNG 트레인 생산규모는 연간 5백만 톤임.
 - 이 프로젝트에는 앙골라 국영석유기업 Sonangol(22.8%)과 Chevron(36.4%), ExxonMobil(13.6%), Total(13.6%), BP(13.6%)가 참여하고 있음.
- 앙골라 의회의 이번 승인에는 Angola LNG 프로젝트로 인정되는 Quiluma와 Enguia-North, Atum, Polvi 4개 지역에서의 가스 경제성 평가와 탐사, 생산에 대한 승인도 포함됨.

(XI, 2007.6.25), (www.angolalng.com)



1. 카타르 LNG수출 전략

□ 개요

- 아시아 LNG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카타르는 최근 높은 LNG 수출가격을 설정하였으나 아시아 시장의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, 카타르의 LNG 가격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.

□ 세부내용

- LNG 수급 현황
 - 아시아 지역의 LNG시장은 수급불균형 상황이 전개되어 '06년 기점으로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되었으며, 적어도 '11년까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.
 -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LNG 가격은 판매자 요구에 따라 S-Curve가 폐지되어 유가 연동성을 증가시킴.
- 카타르 LNG 상황
 - 연간 4,8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카타르는 일부 물량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전환하려고 함.
 - ※ 카타르는 '97년부터 LNG 사업부분에 진출하여 '06년 수출용량 2,600만 톤에서 '11년 7,700만 톤으로 3배 확대할 계획임.
 - '12~'13년까지 세계 LNG의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카타르는 가격 설정자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, 수출가격을 유가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 - 카타르 LNG는 JCC(일본 수입유가) \$60을 기준으로 \$10.50~\$11.00/MMBtu을 적용하였음.
 - 반면에, 호주 North West Shelf LNG는 JCC \$60을 기준으로 \$8/MMBtu을 적용하였는데, 이는 시장에 보다 합리적 신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져 국제적 기준으로 활용됨.



- 일본 또한 장기계약으로 \$8~\$9.5/MMBtu를 고수하고 있음.
- 카타르의 LNG 수출전략
 - 카타르의 전략은 QFLEX와 QMAX와 같은 대형 LNG 선박이 아태지역에 운영되기 전에 장기계약으로 높은 가격(\$10~\$11/MMBtu)에 가능한 많은 물량(연간 1,000~1,500만 톤)을 판매하는데 있음.

카타르 LNG 프로젝트 현황

프로젝트	트레인	시작년도	연간 생산량 (10억 m ³)	계약	최근 계약사항 (연간 10억 m ³)
Qatargas	1~3	'97~'98	12.9	일본, 스페인	
Qatargas II	4	'08	10.6	영국	일본 추부, '08~'12년 (1.6) 계획
	5	'08	10.6	영국	프랑스 및 멕시코로 전환 가능(5)
Qatargas III	6	'09	10.6	미국	한국, '09년 (2.9) 계획
Qatargas IV	7	'10	10.6	미국	
Rasgas	1~2	'99	9.0	한국, 스페인	
Rasgas II	3	'04	6.4	인도	
	4	'05	6.4	인도, 한국	한국, '07년 (2.9)
	5	'07	6.4	스페인, 이탈리아, 벨기에, 대만	
Rasgas III	6	'08	10.6	미국	절반가량은 아시아로 전환 될 계획
	7	'09	10.6	미국	

자료 : IEA, Natural Gas Market Review 2007

- 카타르의 LNG 수출전략의 장애요소
 - 아시아 지역(한국, 일본, 대만)으로 전환 가능한 물량은 수입원의 다양화로 한계가 있으며,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지역으로 수출 가능한 물량은 연간 약 1,500~2,000만 톤으로 전망됨.
 - 중국 및 인도의 경우, 적정가격에 대한 한계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, 국영 전력회사는 \$3.50~\$3.75/MMBtu 가격 이상으로는 구매할 의사가 없으며, 중국정부가 설정한 가격은 \$5/MMBtu대임.
 - 호주의 NWS의 \$8/MMBtu 가격은 아시아에서 가장 합리적인 계약으로 평가되어 신규 계약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


- 수입국에 있어서 미국 Henry Hub 가격이 가격설정에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으며, Henry Hub 가격은 대략 \$7~\$9/MMBtu 선을 유지할 것이며, '08~'09년에는 현 수준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- 카타르의 대안
 - 만약 카타르가 아시아지역으로의 대규모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데 실패한다면 첫째, Henry Hub 가격의 영향을 평가하고, 호주 NWS의 가격인 \$8~\$9/MMBtu를 반영하여 가격전략을 수정하는 것임.
 - 둘째, '10년(기존 장기계약의 만료시점)에 구매자가 선회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금의 높은 수출가격을 유지하는 것임.

□ 시사점

- 아태 지역에서의 LNG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및 수급 상황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카타르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LNG 도입선 및 경제적인 공급 물량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(LNG Journal, 2007.6)

2. 일본, 전력시장 소매자유화 논의

□ 개요

- 일본 경제산업성(METI)의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사업분과회 제도개혁 실무그룹이 6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가정 부문을 포함한 전력시장 소매자유화 범위확대에 대해 논의함.

□ 세부내용

- 실무그룹은 현행 제도 하에서 전면자유화에 돌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피력함.
 - 현재 수요자의 선택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



도 하에서는 경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공표함.

- METI는 전면자유화의 비용효과분석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 (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'15년도를 기점으로 효율화에 따른 편익 및 수반되는 비용 계산).
 - 첫째, 현행 부분자유화를 유지한 채로 '10년부터 경쟁정책을 강화한 경우는 1조 1,741억 엔의 높은 정책효과가 발생함.
 - 둘째, 전면자유화만을 실시할 경우는 비용이 편익을 6,794억~8,063억 엔 상회함.
 - 셋째, 전면자유화와 경쟁정책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는 편익이 4,464억~6,894억 엔에 그침.
- 수요자 선택폭의 확보상황에 대해서는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분석함.
 - PPS(특정규모전기사업자)의 낮은 점유비, 전력회사 구역 외 공급정지 등으로 다른 전기사업자로 변경한 수요자는 20% 정도이며, 해당 지역 전력회사의 요금인하 등으로 수요자가 기존의 계약에 만족하고 있음.
 - 해당 지역 전력회사 이외의 사업자에 관한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못해 타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선택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.
 - PPS의 전원확충 등 도매전력시장의 활성화에서 선택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선택폭의 확보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림.
- 전면자유화 연기는 확정적이며 가을 이후에는 탁송요금의 인하, 안정공급을 위한 송전설비의 증강 등 현행제도의 개선으로 논의의 초점이 이동할 것임.
 - 실무그룹은 7월 11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견해를 반영한 보고서를 정리하여 7월 30일에 제출할 예정임.

□ 시사점

- 지난 4월에 자원에너지청 전기사업분과회는 자원확보경쟁의 심화, PPS제



도의 위축, 온난화대책 등을 이유로 전면자유화에 소극적이었음.

-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속도와 방법을 조절하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방침임.

(日本 電氣新聞, 2007.6.29)

3. 캄보디아 해상유전 개발

□ 개요

- 최근 캄보디아의 해상유전 개발권에 대한 미국과 한국, 중국 등 9개 국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, 캄보디아 역시 개발권 및 원유 판매 수익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이용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음.

□ 세부내용

-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남서부 연해 유전을 6개 광구로 나누고 9개 국가가 공동 개발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음.
- 6개 광구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Chevron이 이끌고 GS Caltex가 참여하고 있는 A광구임.
 - 매장량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캄보디아 석유관리국에 따르면 현재 A광구 원유 추정 매장량은 약 7억 배럴, 가스는 850억~1,416억 m³임.
 - Chevron은 '05년 말 A광구에서 시추를 개시하여 총 9개의 유정을 발견하였고 빠르면 '08년부터 원유 및 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.
 - A광구의 경제성이 입증되면 향후 20년간 12만 b/d가량 생산이 가능할 것임.
-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의 석유판매 수익 유용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태국과의 Overlapping Claims Area(OCA) 문제 등으로 유전 개발이 순탄치 않음.



- 캄보디아 해상유전 개발 붐으로 캄보디아-태국간 OCA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.

※ 캄보디아, 태국은 Gulf of Thailand에 위치한 27,000 km² 규모의 지역에 대해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해 왔으며, 양국 모두 서로 다른 기업에 개발권을 준 상태임.

Overlapping Claims Area 현황

지역(캄보디아/태국)	캄보디아	태국
Area I / Blocks 5&6	ConocoPhilips, 66.7% Idemitsu, 33.3%	Chevron, 50% Idemitsu, 50%
Area II / Blocks 7, 8&9	ConocoPhilips, 66.7% Idemitsu, 33.3%	BG, 50% Chevron, 50%
Area III / Blocks 10&11	Enterprise Oil(Shell), 50% BHP Billiton, 50%	Chevron, 60% Moeco, 40%
Area IV / Blocks 12&13	BHP Billiton, 50% Inpex, 50%	Chevron, 80% Moeco, 20%

-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동남아시아 최빈국이자 국내 전력 생산을 수입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캄보디아로서는 유전 개발을 경제개발의 큰 기회로 여기고 있음.
- 캄보디아 국내 발전용량은 300MW에 불과하며, 베트남에 대한 전력의 존도가 지나치게 높음.
- 현재 유가 기준(\$60/bbl)으로 보면 석유 수입은 연간 \$150억으로 추정되며, 이는 현재 캄보디아 예산의 3배에 달하는 액수임.

캄보디아 해상광구 현황



(Energy Economist, 2007.6)



1. '07 Global Energy Survey

□ 개요

- The World Energy Council(WEC)과 Korn/Ferry International은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수급과 기후변화, 국제정세 등에 관한 국제 에너지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.

□ 세부내용

- 에너지 수요
 -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 - 응답자 90%는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향후 5년간 중국이 견인할 것으로 봄.
 - ※ IEA는 화석연료가 '04년에서 '30년 동안 83% 증가할 것이며, 이 중 30%는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.
- 에너지 가격
 - 응답자 65%는 국제유가는 향후 5년간 배럴당 \$60~\$80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함.
 - 응답자 80%는 중기간에 석탄 수급은 안정적이며, 향후 5년간 톤당 \$50~\$60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, 에너지구성에서의 석탄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.
 - 응답자 대부분은 향후 5년간 북미의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\$10~\$1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.
 - 대부분은 향후 5년간 전력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, 응답자 60%는 개발도상국의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힘.
- 에너지 공급



- 응답자 대부분은 중기간의 심각한 에너지 공급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봄.
 - 또한 응답자 대부분은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향후 10년간 1~10% 성장할 것으로 내다봄.
 - 응답자 절반은 석탄이 전력수급의 안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함.
 - 응답자 60%는 바이오 연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체 에너지 구성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작을 것으로 봄.
- 기후변화
- 응답자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국제협약이 가까운 시기에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봄.
 - 응답자 90%는 환경적 고려요소는 단기에 산업부문에 영향을 줄 것이며, 장래 투자를 비롯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.
 - 응답자 절반이상은 친환경에너지 사용확대의 장벽으로 기술 부족을 언급하였음.
- 국제정세
- 응답자 90% 이상은 국제정세의 긴장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응답자 80%는 주요 정치적 불안요소로 중동과 러시아, 이란을 거론하였음.
 - 응답자 70%는 이라크와 이란, 이스라엘-팔레스타인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더욱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봄.
 - 응답자 75%는 유럽연합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높아 향후 3~5년간 잠재적으로 국제정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함.

□ 시사점



- 본 설문조사는 세계 주요 에너지기업 CEO들의 향후 에너지시장에 대한 전망을 종합한 것으로, 에너지관련 정책결정시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특히, 응답자의 65%가 향후 5년간 국제유가를 현재와 같은 고유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현재 국내의 일반적 전망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.

(World Energy Council, 2007.6)